

# 2022년 미국 고용 전망

Randall W. Eberts (미국 W.E. 업존 고용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 머리말

현재 미국 의회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크게 분열되어 있다. 2022년 11월 중간선거(대통령 4년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민주당과 공화당이 차지하는 의석 수에는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공통된 견해이다. 현재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221석으로 212석인 공화당과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sup>1)</sup> 상원에서는 민주당 코커스 소속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상원 투표결과가 동수일 경우 상원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이 향후 양원에서 우위를 유지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 정부 어젠다의 추가 내용을 반영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sup>3)</sup> 의회는 중요한

- 1) 사망과 사임이 각각 한 명씩 있어 현재 의석 2개는 공석이다.
- 2) 실제로는 민주당원이 48명, 공화당원이 50명이지만, 무소속 의원 2명이 민주당 코커스에 속해 있어 각 진영이 50 대 50으로 양분되어 있다.
- 3) 상원 100석 중 34석에 대해 2022년 재선거가 진행된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3개의 클래스(class)로 나뉘어 2년마다 교체된다. 2022년에는 민주당 14명과 공화당 20명에 대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2022년 1월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 5명과 민주당 상원의원 1명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2명은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두 법안인 미국구제계획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의 목적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낙후된 인프라라는 심각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 어젠다의 다른 부분들도 적게나마 이 두 법안에 반영되어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미국인이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은 물론 마스크 착용마저 꺼리고 있다. 2022년 초 기준 접종가능 인구(5세 이상)의 대부분이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만큼의 백신이 확보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3차 접종을 완료한 인구는 전체의 62%에 그치고 있다.

## ■ 바이든 정부 1년 차에 통과된 주요 법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해에 의회는 두 건의 중요한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3월 2조 달러 규모의 미국구제계획을 통과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미국구제계획은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통과된 6개 법안 중 가장 마지막 법안으로, 앞선 5개의 법안은 모두 트럼프 정부 시기에 통과되었다. 미국구제계획은 바이든 정부에서 통과된 가장 큰 규모의 법안으로, 이에 따르면 기업이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주고 팬데믹 극복에 필요한 가계자금을 지급한다. 특히 가계를 위해 백신 배급 예산을 책정하고 국민 1인당 1,4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자녀장려세제(CTC)를 확대하고 주택 소유자 지원기금 및 긴급 임대료 지원금을 제공한다. 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질병, 격리 및 돌봄에 대한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또한 미국구제계획에는 학군을 포함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긴급의료시설에서부터 지역 기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에 따른 손실매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되었다. 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총 3,500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 등에 지원한다.

2021년 11월에는 1.2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이하 일자리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다. 일자리법에 따라 향후 5년에 걸쳐 5,500억

달러의 신규 연방투자가 교량 및 도로에서부터 전국 광대역 통신망, 수자원 및 에너지 시스템에 이르는 다양한 인프라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프라 투자가 미국 내 상품 및 농산물의 효율적인 운송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미국토목학회는 2021년 초 미국의 인프라를 ‘C-’ 등급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학회 기준에 따르면 미국의 인프라 수준이 평균 미만이라는 의미이다.<sup>4)</sup>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인프라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아왔다. 일자리법에는 도로, 교량 및 주요 인프라 사업에 1,100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의 약 20%(17만 3천 마일)와 4만 5천 개의 교량이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일자리법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에너지 효율적인 운송 방식에 대해 수식형 재정지원(formula funding)을 운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일자리법에는 대중교통과 철도 개량도 포함되어 있다. 여객 및 화물철도 인프라에 66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그중 일부는 암트랙(Amtrak, 전미여객철도공사) 시설을 철거하는 데 쓰일 예정이며 고속철도를 포함한 도시철도서비스 파트너십 보조금으로 120억 달러가 지출될 예정이다. 광대역 통신망 확대도 바이든 정부 어젠다의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법에 따라 650억 달러가 전국 광대역 통신망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 투자는 광대역망 확충뿐만 아니라, 연방 지원금 수혜 기업에 낮은 비용의 상품과 가격 투명성을 요구하고 인터넷 공급자의 지역 경쟁을 활성화 하며, 저소득 가구의 인터넷 이용을 지원하는 상시적 연방 프로그램을 수립함으로써 가계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법은 항만, 공항 유지보수(810억 달러) 및 전력과 수자원 시스템을 개선(650억 달러)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환경 개선에 210억 달러, 전기차 및 저배출 인프라 확대에 15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의회에서 여러 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일자리법의 예산 총액은 당초 2조 2,500억 달러에서 1조 2천억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여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천명했던 우선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약했던 대로, 일자리법 예산의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부채를 지지 않고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지출이 가능한 페이고(pay-as-you-go) 원칙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예산처는 일자리법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적

4)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2021), “2021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https://infrastructurereportcard.org>

자규모가 2,56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sup>5)</sup>

일자리법은 다양한 연방기관에 여러 가지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부가 커뮤니티 컬리지뿐만 아니라 직업훈련학교에서의 교육 및 훈련을 인정하고, 기존의 교통부 주관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해 실습 훈련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에너지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 직종을 위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3건의 경쟁 지원금(competitive grants)을 신설하게 했다.<sup>6)</sup>

## ■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바이든 대통령은 위의 두 법을 통해 구현된 정부 어젠다 외에 더 많은 조치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어젠다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관련 대책의 상당수가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태양열, 지열, 풍력, 배터리 및 기타 청정 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법안 전체 예산인 2조 달러의 1/4 이상을 배정했다. 또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기차 구입에 대한 최대 1만 2,500달러의 세금 공제와 저탄소 원자력 발전소 가동 및 온실효과를 막기 위한 배출가스의 지하 매립에 대해서도 기업 장려금을 책정했다.

가계와 관련하여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자녀장려세제(CTC), 유급휴가 세액공제(Paid Leav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를 확충하고자 한다. 특히 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세액공제를 계속해서 운영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세액공제의 실시 기간은 바이든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훨씬 단축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당수를 상설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거듭되는 협상 과정에서 이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2021년 12월에는 법

5)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21), "Senate Amendment 2137 to H.R. 3684,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as Proposed on August 1, 2021", <https://www.cbo.gov> (검색일: 2022.1.19).

6) Miller, S.(2021), "President Signs Infrastructure Bill with Workplace Provisions", *SHRM*, November 15, <https://www.shrm.org> (검색일: 2022.1.28).

안의 세액공제 조항이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 기간은 1~5년에 그치게 될 상황에 이르렀다.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되지 않는다면 바이든 정부는 어젠다의 상당 부분, 즉 사회복지 개선 및 세제 개혁 관련 입법에 실패하게 된다. 어젠다의 다른 부분들은 미국구제개혁과 일자리법에 구체화되어 있지만, 두 법안은 중산층 노동자를 위한 바이든 정부 계획의 작은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 ■ 미국 경제

현재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미국 경제에서는 몇 가지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물가 인플레이션이다. 2021년 대부분의 전문가는 공급망 차질, 자녀 돌봄 부족, 단기적 임금 상승 등의 일시적 문제들을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제 전문가들은 최소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경제 전망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신 분기별 조사(2021년 11월)에 의하면, 직전분기 대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p 인상된 4.6%이다.<sup>7)</sup>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헤드라인 소비자물가(headline CPI)는 연평균 2.55% 상승하고 헤드라인 개인소비지출(headline PCE) 인플레이션은 평균 2.3%에 이를 것이다. 향후 10년에 대한 두 물가지수 전망치 모두 직전분기 조사에 비해 0.1%p 상승했다. 연준은 통화정책의 기준치로 PCE 인플레이션을 2%로 설정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이 기준치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았다.

일부 부문에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공급망의 차질인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시작되었다. 코로나19는 경제 침체를 촉발했으며 대량해고와 큰 폭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 2020년 3월의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그 당시 2년 후에 일어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팬데믹 초에는 제조업의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틀린 생각이었다. 연방정부가 개입하여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7) Federal Reserve Bank Philadelphia(2021), "Fourth Quarter 2021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 <https://www.philadelphiafed.org> (검색일: 2022.1.28).

국민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6개의 구제 패키지를 실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초기의 상품 수요,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이었다. 중국의 공장들은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 화물선들이 전 세계에 방역 물품을 나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화물선 컨테이너들은 전 세계 각지에 쌓이기 시작했고 정작 기록적인 물량 생산으로 컨테이너가 가장 필요한 중국에서는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의 경우 내구소모재 수요는 증가한 반면 서비스 수요는 감소했고, 이는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역전이었다. 소비자는 외식과 여행을 줄이는 대신 집에 머물면서 전자제품, 가정용 사무가구 및 주방용품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입했다. 공장에 주문량이 쏟아지면서 미국의 항구와 전 부문의 기업이 신규 인력을 고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기업이 임금을 높였음에도 인력난은 지속되었고, 상품 품귀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또한 휴교와 돌봄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경제 전망 전문가들은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을 4.0%에서 3.4%로 낮추었다. 낮은 전망치로도 경제는 안정적인 궤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2022년 경제 활력에 대한 낙관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GDP는 각각 2.6%, 2.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전의 전망치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전망치인 2.3% 성장률은 대침체(Great Recession) 직후 경제확장이 시작되었던 2009년 3분기 이후의 실질 GDP 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2022년 분기별 전망치도 마찬가지로, 2022년 1분기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었지만 2분기와 3분기에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지난 2년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경제봉쇄 당시 실업률은 13.3%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 12월에는 3.9%로 팬데믹 이전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렀다. 2021년 12월 낮은 실업률과 동반한 고용수치 감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수요 약화보다는 공급 약화를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노동력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82%가 2022년 1분기에 임금 인상(57%) 또는 고용수준 유지(25%)를 계획하고 있다.<sup>8)</sup> 특히 임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26%p 증가했다.

8) ManpowerGroup(2021), "United States ManpowerGroup Employment Outlook Survey", <https://f.hubspotusercontent40.net> (검색일: 2022.1.28).

노동수요의 강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구인건수 대비 실직자 비율은 1:0.64를 기록했는데, 이는 구인건수가 실직 상태의 구직자 수보다 더 많음을 의미한다(그림 1 참조). 지난 수개월간 사용자들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수치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림 1]에 서 볼 수 있듯이, 2021년 12월의 구인건수 대비 실직자 비율은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구인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0.64라는 수치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림 1]에 의하면, 구인건수 대비 실직자 비율은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초에 근래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로는 계속해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널리 인용되고 있는 또 다른 통계 자료는 퇴사율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클 때 현재의 일을 그만두고 구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미 맨파워그룹의 CEO는 최근 기업이 계속해서 노동자를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고 노동자가 원하는 바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 지속적인 절충이 이루어지면서, 60년 전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낙관적인 분기별 보고를 접하고 있다고 밝혔다.<sup>9)</sup>

경제분야 싱크탱크인 콘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가 2021년 11월에 실시한 조사도 맨파워그룹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며, 소비자 응답자 중 58%가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답

[그림 1] 구인건수 대비 실직자 비율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의 구인 및 실직자 통계를 필자 정리.

9) Ibid.

했다.<sup>10)</sup> 이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낙관적 분위기는 2022년 전반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의 22.1%는 향후 6개월 동안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 ■ 연준의 대응

이미 연준은 약 8조 달러 규모의 국채 및 모기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연준 관료들은 2021년 12월 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에 제정된 초완화 정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명분도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 또한 완전 고용 및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중점 요소들을 언급하면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급증에 대해 우려하는 동시에 일자리 시장은 완전고용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1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의하면, 2022년은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연방기금금리는 높이는 입장으로 정상 회귀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11)</sup>

## ■ 노동조합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노조친화적이며 이러한 성향이 과거 대부분의 미국 정부보다 강하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노동력의 9%만이 노조원이며, 가계 구성원 중 1명이라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 가구에 속하는 미국인은 17%에 불과하다. 2021년 8월에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노조에 우호적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다.<sup>12)</sup>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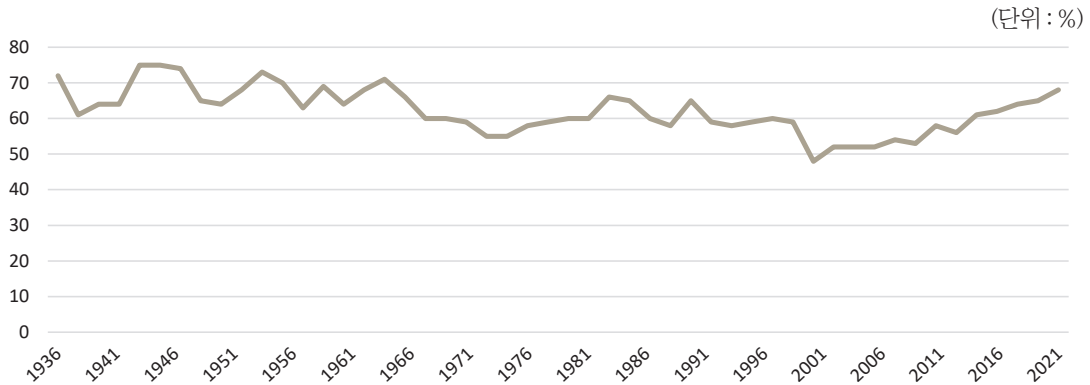
10) PR Newswire(2021), "Consumer Confidence Improved Again in December", December 22, <https://www.prnewswire.com>

11) Fed(2022), "Press Release for December 14-15, 2021 FOMC Meeting", <https://www.federalreserve.gov> (검색일: 2022.1.28).

12) Brennan, M.(2021), "Approval of Labor Unions at Highest Point Since 1965", *Gallup News*,



[그림 2] 노조 활동을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비율



자료: 1936~2021년 갤럽조사 결과를 필자 정리.

는 응답자의 71%가 노조에 우호적이라고 답한 1965년 조사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그림 2 참조).<sup>13)</sup> 전체 연령 집단 중 청년층이 노조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북미 맨파워그룹 CEO는 청년의 경우 자신들이 받고 있는 임금 및 복지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유연성과 목적의식을 추구하는데,<sup>14)</sup> 바로 노조 활동으로 그것이 충족될 수 있다고 여긴다고 하였다.

## ■ 최저임금

연방최저임금은 여전히 시급 7.25달러에 머물러 있으며, 당분간 의회에서 이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 의회가 최저임금을 마지막으로 인상한 것은 2009년 7월이었다. 2022년은 연방최저임금이 동결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로, 미국 역사상 가장 장기간 동결되어 있는 셈이다. 참고로

September 21, <https://news.gallup.com>

13) 갤럽은 1936년부터 노조 활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를 실시해왔다. 1967년 이전에는 노조에 우호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수년간 7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우호적인 응답자 비율이 하락해 2009년에는 4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4) PR Newswire(2021), “New Year Hiring Boom : U.S. Employers Report Optimistic Intentions for Q1 2022 Hiring”, December 14, <https://www.prnewswire.com> (검색일: 2022.1.28).

2009년 이후로 최저임금 7.25달러의 실질가액은 21% 이상 감소했다. 개별 주 및 시에서는 물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임금 인상에 맞추어 최저임금이 계속 변동되고 있다. 2022년 초 21개 주와 35개의 카운티 및 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다.<sup>15)</sup> 그중 33개 지역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15달러 이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2022년 말에 이르면 49개 관할지역(2개 주, 47개 카운티 및 시)의 최저시급이 15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수의 관할지역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 이상으로 인상하게 된 데에는 약 10년 전에 시작된 한 운동이 시발점이 되었다. 2012년 11월 뉴욕시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들이 작은 그룹을 만들어 저임금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에 나섰는데, 여기에서 촉발된 15달러 운동(The Fight for \$15)으로 인해 많은 주, 시, 카운티와 일부 기업이 저소득 노동자에게 15달러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게 되었다. 미국 고용조사전문기관인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NELP)의 추산에 따르면, 2,600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았으며 그중 1,200만 명은 유색 인종이고 1,800만 명은 여성이다.<sup>16)</sup> 이들이 받은 임금인상분 총액은 1,500억 달러에 이른다. 또한 인상분의 압도적인 비중(73%)이 주 및 지자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약 25%는 아마존, 코스트코, 타겟, CVS, 월그린스, 스타벅스, 치폴레, 월마트 등의 기업에서 초임 최저임금을 인상한 결과이다.<sup>17)</sup>

## ■ 맺음말 : 향후 지속적인 동향 주시 필요

상황은 변할 수 있다. 2022년 고용전망에 활용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전에 발표된 것이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및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전염성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 변이는 미국 의료체계와 노동 전반

15) Lathrop, Y.(2021), "Raises from Coast to Coast in 2022", <https://www.nelp.org>

16) Lathrop, Y., T. W. Lester and M. Wilson(2021), "Quantifying the Impact of the Fight for \$15: \$150 Billion in Raises for 26 Million Workers, with \$76 Billion Going to Workers of Color", <https://www.nelp.org>

17) Smith, K. A.(2021), "8 Big Companies Raising Their Minimum Wage During COVID-19", *Forbes*, October 5, <https://www.forbes.com> (검색일 : 2022.1.12).

---

에 큰 타격을 입혔다.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특히 백신 접종자에게는 이전 변이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오미크론 감염자의 입원이 폭증하면서 이미 감염으로 인해 인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병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 정부들이 말 그대로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시켰던 팬데믹 초기와 달리, 이제는 노동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학교와 보육시설이 아동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시 폐쇄되거나 그럴 위기에 처하면서 부모들도 다시 집에 머물러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많은 저임금 노동자와 맞벌이 가정의 노동자는 자신들의 보수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직장 폐쇄나 입원 측면에서 최악의 팬데믹 상황은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아마도 코로나19에 대한 단일함이 커진 것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구의 35%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한, 더 많은 코로나19 변이가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휩쓸 것이고 이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KLI**